

1947년~1948년 우익청년단의 통합과 갈등

이동원 (서울대학교)

머리말

1. 우익청년단의 난립과 통합 필요성
2. 대동청년단 중심의 우익청년단 통합운동
3. 우익청년단의 갈등과 충돌

맺음말

머리말

오늘날 青年이란 일반적으로 20대를 지칭하지만, 해방 정국에서 青年은 40세 미만을 가리키는 매우 폭넓은 범주였다. 결국 을사늑약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해방 직후 青年인 셈이었고, 정치적 열망의 폭발과 함께 수많은 青年들이 청년운동에 투신했다. 즉 해방 정국에서 청년운동·청년단체는 곧 정치운동·정치단체와 다름없었다.

해방정국에서 청년단체는 일반적인 정치단체와는 달리 강한 물리력과 결집력을 특징으로 했다. 이에 대한 CIC(주한미군 방첩대)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다.

“한국정치의 힘에서 어떤 정당이 자신의 대의에 열렬히 충성하며 ‘더러운 일’(dirty work)을 수행할 강력한 무장청년단체가 없다면 다른 정치조직에게 아무런 위협도 될 수 없다. 한국에서 청년은 40세 이전까지이며 청년단체는 보이스카웃과 다르다. 한국의 청년단체는 연장자에 대한 극단적 숭배라는 오래 된 전통이 있다.”¹⁾

위의 분석은 ‘불만 당기면 폭발할 것 같은 화약통’과 같았던 당시 한국의 정세에서 법과 질서보다 당장의 물리력이 중시되었던 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특히 우익은 이러한 청년단체들의 물리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좌익이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전평),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등 광범위한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자연

1) History of the CIC Vol.XXX. CIC During Occupation of Korea; 정용욱 편, 1995 《解放直後政治社會史資料集》 제10권, 다락방, p.83.

스럽게 물리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우익에게는 이러한 대중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익은 일제시대 주먹, 체육인, 무술인, 공산주의를 피해 월남한 청년 등으로 구성된 우익 청년단을 자신들의 물리력으로 삼았고, 해방 공간에는 좌우익 물리력의 충돌로 인한 폭력과 파괴행위, 테러가 난무했다. 이런 현실에서 현준혁,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김구 등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좌우익 테러로 쓰러져 갔고, 이 같은 정치풍토는 1950년대의 ‘정치깡패’ 문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우익청년단을 주도했던 이범석, 이청천, 오광선, 유진산, 서상천, 이선근, 이철승 등은 단순한 주먹이 아니었다. 이들은 광복군 장군 출신이거나 (이범석, 이청천, 오광선) 일본 유학과 엘리트로 (유진산, 이선근) 해방 정국에서 크고 작은 청년단의 수장으로 출발해 1950년대 이후 한국 정치를 이끌어간 정치인, 이데올로그로 성장했다. 결국 해방 이후 우익청년단에 대한 연구는 해방 공간 정치사 연구이자 반공과 근대화를 두 축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치사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47~1948년 우익청년단의 통합과 갈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각 단체별 조직 및 활동, 성격을 해명했다면,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은 주로 이 시기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했던 이범석의 朝鮮民族青年團과 이청천의 大同青年團이 될 것이다.

1. 우익청년단의 난립과 통합 필요성

1946년 5월, 조선공산당 계열의 정판사 위폐사건을 계기로 좌익이 불법화되면서 좌우익 청년단체들의 세력 판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좌익 청년단체들은 수세에 몰렸고 유진산, 김두한이 이끄는 대한민주청년동맹(대한민청), 문봉제, 선우기성이 이끄는 평안청년회(평청, 서북청년회의 전신), 유화청, 문병극이 이끄는 독립축성국민회 청년연맹(국청) 등이 이즈음 결성되어 파업 및 집회 파괴, 요인 테러 등 좌익 탄압에 앞장섰다.

이러한 우익 청년단의 맹활약은 주로 38선 이북 토지개혁과 반탁운동 이후 고양된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1946년 9월 총파업, 10월인민항쟁으로 나타난 좌익의 ‘신전술’에 대응할 물리력 부족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미군정

과 경찰은 부족한 물리력을 보충하고 경찰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테러를 수행할 전위대로서 우익청년단들의 활동을 묵인, 방조했다.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경찰의 묵인과 방조는 좌익에게 실제보다 더 큰 공포를 안겨 주었다. 보성에서는 독립축성국민회 청년대(국청)가 좌익계열 신문인 중외신문과 서울 뉴스 보성지역사무소를 공격하고, 좌익청년단체의 통합조직인 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 보성지부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한 좌익의 실질적 피해는 미미했지만 이들은 경찰의 고의적 방조를 감지하고 우익이 기대한 것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 즉 민청 보성지부를 폐쇄하고 서울에 신문 공급 중단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 때 경찰은 묵인의 수준을 넘어 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행동하기도 했다.²⁾

이런 분위기를 타고 반공이 곧 애국이라고 믿는 혈기 왕성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우익청년단이 난립,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분명 좌익 세를 약화시켰지만 지나친 공명심으로 무고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익청년단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1946년 9월 12일,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건국청년회, 역도근로단, 고려청년회, 조선청년회 등 16개 단체가 통합하여 서상천을 단장으로 한 대한독립청년단(독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의 지원을 받는 이범석과 광복군 2지대 간부들이 10월 9일,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을 결성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을 지지하는 우익 청년단체들도 12월 18일과, 12월 28일, 조선청년당과 조선청년동맹을 발족하였다. 서울에 있는 이북 각 도별 청년단체들도 통합하여 11월 30일, 선우기성을 단장으로 서북청년회(서청)를 발족하면서 독청 중심의 우익청년단 통합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³⁾

서청은 이북에서 월남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반공의식이 가장 투철했고 사실상 경찰 보조기구로 활동했다. 미군정도 서청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경무부장 조병옥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서청은 이후에도 극우 청년행동대로서 악명을 유감없이 떨칠 수 있었다. 미군 정보기관인 CIC조차 각 지역 서북청년회 단원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좌익 활동 감시와 좌익조직 침투에 이들을 활용했다.

그러나 우익청년단의 도를 넘어선 활동은 끝내 경무부장 조병옥도 손 쓸 수 없는

2) CIC 전주 지부 보고에 따르면, 우익테러가 도 공안사무국의 승인 하에 명백히 경찰과 함께 행해졌으며 계획은 경찰과 우익들이 같은 선상에서 공유하였다. (CIC Weekly Information Bulletin #2, 1947.5.1. 이후 서술의 대부분은 CIC Weekly Information Bulletin을 참고한 것)

3) 전상봉, 2004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두리미디어, p168.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대한민청의 김두한계가 좌익행동대인 조선청년전위대 대장인 정진용을 비롯한 일당 30여 명을 납치하여 린치를 가한 끝에 정진용과 김천호가 죽고 만 것이다. 이는 조병옥, 장택상 등 경찰수뇌진이 47년 4월 중순 도미 외교 후 귀국하는 이승만 경호에 서청, 대한민청, 국청, 독청 등 우익청년단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김두한은 우미관 시절부터 한술밥을 먹은 옛 동지였지만 좌익행동대 대장이 되어 양속관계였던 정진용이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고 추측하고 일을 벌였다. 과잉 충성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린치 끝에 풀려난 피랍자 중 한 명이 CIC에 신고하고 미 헌병 1개 소대가 출동하여 김두한을 비롯한 대한민청원 32명을 체포했기 때문에 장택상과 조병옥도 손을 쓸 수 없었다. 결국 대한민청은 미군정 행정명령 제2호로 해산되었다.

대한민청 회장 유진산이 미군정의 행정명령 이전인 4월 25일, 대한민청의 발전적 해체를 선언하고, 5월 3일, 청년조선총동맹(청총)을 결성하면서 대한민청은 간판만 바뀌고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우익청년단의 난립과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새로운 통합 운동의 필요성이 높아져만 갔다.

2. 大同靑年團 중심의 우익청년단 통합운동

광복군 총사령으로 이름 높았던 이청천은 김두한의 대한민청에 의해 정진용, 김천호가 납치, 살해당한 바로 다음 날인 1947년 4월 21일, 이승만과 함께 귀국했다. 이청천은 귀국 담화에서 “나는 정치가가 아니므로 아직 아무 계획도 없으며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는 소박한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불과 열흘 뒤인 5월 3일, “조선독립을 전취할 유일한 방도는 오로지 청년운동의 단일화에 있다”며 청년운동 통합의 뜻을 나타냈다. 그리고 5월 12일에는 한미호텔에서 각 우익청년단체 대표가 회합하여 우익청년단을 통합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청천은 1947년 5월 23일, 김규식을 만나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청년 조직 통일을 논의하였다.

이청천은 우익진영의 청년단체들을 통합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미군의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힘을 가진 남한 군대를 창설하려 했다. 북한은 미소가 철군하면 한반도를 적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청년조직을 통합해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⁴⁾ 이를 통해 그가 광복군 총사령 출신으로서 통합된 청년단체를 국가

4) 김수자, 1999 <대동청년단의 조직과 활동(1947~1948)> 《역사와 현실》 31, pp.176~181.

건설 이후 建軍의 초석으로 삼고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 국무성도 “위협적이고 실제적인 북한군의 활동이 38선을 넘어 전개될 경우 하지 장군은 자신의 지역 내의 전반적 국내 질서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실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하지 장군에게 전달했다. 미군정 역시 북한의 무력에 대항할 남한 내 물리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정은 10월항쟁 이후 우후죽순처럼 조직된 군소 우익청년단을 정비하고, 청년단체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테러를 근절할 필요도 있었다. 우익청년단체들의 테러활동이 갈수록 증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협박, 공갈을 자행하자 미군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청천은 귀국 후 이러한 국내정세를 파악하고 각계 인사를 접촉하면서 청년단체 통합의 지지와 호응을 얻게 되었다. 1947년 6월 14일 이청천은 자신의 계획을 하지 중장과 브라운 소장 및 러취 군정장관,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과 함께 논의했으며 이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⁵⁾

그는 “몽치라. 갈 길은 하나다”라는 구호 아래 모든 청년단체의 통합론을 주장하고 전국 청년단체들의 총통합을 목표로 맹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의 우익청년단체들이 호응하였고, 1947년 8월 7일 각 단체대표들이 회합하여 각 단체의 발전적 해체를 전제로 18개 청년단체가 ‘대동청년단결성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했다.

대청의 인기는 광복군 총사령 경력을 지닌 단장 이청천에 대한 기대와 인기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이청천이 해방된 지 20개월만에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야 독립군의 진짜 장군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방 직후 많은 사람들이 자칭 타칭 장군이라는 호칭으로 돌아왔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허상이 벗겨지고 ‘신통한 장군’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946년 6월에 광복군을 이끌고 개선한 이범석도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조선민족청년단이라는 독자적 조직의 우두머리에 정좌하여 행동반경을 스스로 제한시켜 버렸다.⁶⁾

이청천의 지도하에 발족된 대청결성대회는 1947년 9월 21일 서울운동장에서 정당 및 사회단체 요인들과 지방과 중앙 각처에서 동원된 수만의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방에서는 이미 6월 중순부터 우익청년단체 통합 계획에 따라 통합 작업

5) 건국청년운동협의회, 1990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p.1364.

6) 이경남, 1989 《분단시대의 청년운동 上》 삼성개발문화사, pp.185~186.

이 착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청 결성에는 전국적 지방조직을 가진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단체총연맹’ 주도로 26개 청년단체들이 합류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우익청년단체들의 분열 및 불참가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26개 청년단체 중 70% 정도가 통합에 참여했다. 대청의 중앙 부서와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동청년단의 중앙 부서와 임원 구성>7)

총재 이승만 / 부총재 김구 / 단장 이청천 / 부단장 이성주, 오광선
기획원장 이선근 / 사무총장 이성주 / 훈련원장 오광선 / 훈련부장 이선근
총무부장 윤익헌 / 경리부장 조영진 / 조직부장 채택룡 / 선전부장 김종철
비서장 선우기성 / 교육부장 한민홍 / 감찰위원장 김윤근 / 구호부장 구자흥
산업부장 장윤필 / 여성부장 이보성 / 재정부장 조영진
서북사무처장 김인식 / 회계감찰위원장 진헌식 / 학생국장 주승국

임원 구성은 대청의 주도 세력을 반영했다. 대청 통합은 오광선 등 광복군 출신들로 이루어진 광복청년회(광청)가 주도했다. 또한 전국적 조직기반을 가진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단체총연맹(청련)’ 출신의 이성주, 이선근, 김윤근 등이 요직을 차지했다. 서청은 분열되어 참가했기 때문에 실권을 쥌 수 없었다.

대청의 이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역 또는 계급적 의식을 청산하고 생존적 충동에 의한 전 민족적 단결에 의하여 완전자주독립을 기한다. 둘째, 정의에 입각하여 전 인류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기도하는 세계정책을 지원한다. 셋째, 자유역량의 증대를 기초로 대자연을 정복하는 생산기회의 균등을 주장한다.⁸⁾

대청은 이러한 이념 아래 남한의 12도단부(團部)를 비롯해서 북한에 6단부를 두고 중앙에 특별단부(지역단부) 6개 장소와 서울에 8구단부를 창설하여 남한만의 137군단부를 토대 삼아 1500여 개의 면단부를 조직했다.

그러나 대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많았다. 대청은 족청이 그랬던 것처럼 반공투쟁 노선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이는 우익청년단체 통합의 주요한 장애 요인이 되었다. 또

7) 대청의 중앙부서와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와 연구서를 참고하였다. 《조선일보》 1947.9.23.; 《동아일보》 1947.9.28.; 건국청년운동협의회, 앞의 책, p.1372.;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pp.734~735.; 김행선, 앞의 책, p.419.

8) 김행선, 2004 《해방정국 청년운동사》 선인, p.420.

한 새로운 회원을 받아들이는 문제와 재정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 때문에 테러나 위협을 통해 조직의 기금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청은 급속히 성장하여 1947년 12월 현재 49개의 새로운 지부를 조직하고, 비록 과장된 수이긴 했지만 단원 수가 3백50만 명까지 늘어났다.⁹⁾

3. 우익청년단의 갈등과 충돌

대청의 조직 확대는 기존의 다양한 우익청년단체들을 통합하고 이미 우익청년단체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을 단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대청은 짧은 기간에 거대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한 문제의 소지도 많았다.

첫 번째 문제는 대청 가입이 기존 청년단체의 해체를 전제로 했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인했다. 청년운동의 통합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더라도 막상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존 청년단체를 해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우익 청년단체라 하더라도 기존 조직들 사이에는 정치적 성향, 인맥, 출신 지역, 행동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들의 진정한 통합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치밀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합은 단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부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서북청년회의 분열이었다. 서북청년회를 이끌던 선우기성은 이청천의 대동청년단 결성에 공감하고 비서장이라는 한직에도 불구하고 대동청년단에 가입했지만, 문봉제 김성주 등은 합동을 반대하며 서청 재건을 주장했다.¹⁰⁾ 결국 문봉제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하는 서북청년회가 재건되었고 이들은 1947년 11월, 대청 합류과를 비난하며 대청과는 별개 조직으로 남아 연합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동청년단 통합을 주도했던 광복청년회와 재건 서청의 연합 모색은 토론 격화가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면서 경찰이 충돌하여 진압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만들었다. 청년운동 통합을 목표로 탄생한 대동청년단 결성 과정에서 오히려 기존 청년단체가 분열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당시 우익청년단체의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9) 김행선, 앞의 책, pp.420~421.

10) 선우기성 · 김판석, 1969 《청년운동의 어제와 내일》 햇불사, p.39

대청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두 번째 문제는 대청 통합에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일부 청년단체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이범석이 이끄는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이었다.

이청천은 대청 결성식을 앞두고 이범석에게 대청과 족청의 병합을 제안했지만 이범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IC는 이로 인해 이범석이 테러를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이후에 이범석은 CIC에 출두하여 족청 본부와 단원들이 대청에 의해 다섯 차례 테러를 당했지만 자신들은 비정치적, 비군사적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족청이 대청 중심의 우익청년단체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범석이 이끄는 족청은 대청보다 1년가량 먼저 결성되어 대청 결성 직후인 1947년 10월 9일,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며 세를 과시했다.¹¹⁾ 족청은 결성 1년 만에 전국단원 30만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고 “민족지상, 국가지상”을 내세운 이범석의 지도에 따라 정치 활동이나 좌익에 대한 테러보다는 국민정신 고취, 실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 문화 사업에 힘쓰는 등 기존 우익 청년단체와는 다른 행보를 걸어 왔다. 족청의 급속한 성장은 광복군 총참모장 출신인 이범석의 개인적 명망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원인은 미군정이 자금을 지원한 유일한 청년단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군정의 족청 지원은 이범석이 광복군 제 2지대장으로 미국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와 공동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면서 웨드마이어 중장을 비롯한 미국 관료들이 이범석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웨드마이어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던 웨드마이어는 하지 장군에게 사적으로 이범석을 지원해 줄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¹²⁾

미군정의 이범석, 족청 지원은 미군정의 통제를 벗어난 이승만의 대항마를 키운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나치게 반공적이고 파괴적인 기존의 우익청년단체와는 다른 성격의 청년단체를 미군정 통제 하에 두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만약 미군정의 지원을 등에 업은 족청이 대청 통합에 가담해 주었다면 대청 중심의 우익 청년단체 통합 운동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범석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청천과 이범석이 이끄는 대청과 족청의 경쟁 양상이

11) 《조선일보》 1947.10.9.

12) 박영실, 2003 〈이범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pp.30~39.

자명해졌다.

대청과 족청의 충돌은 주로 대청 단원들이 족청 단원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발생했다. 1947년 10월 말, 충청북도와 서울 영등포에서 족청 단원들이 대청 단원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대전에서는 족청 단원 20명이 대청 단원 60명에게 대청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청년단체간의 충돌은 대청과 족청 이외의 청년단체들에게까지 파급되었다. 충돌은 주로 대청 단원들이 대청 가입을 거부한 청년 단체의 단원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대청단원들이 서청 사무실을 공격하여 문서를 파괴하고 10여명을 입원시키기도 했고, 서청에서 대청으로 합류한 합류파 서청 단원들이 주도하여 재건파 서청 사무실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대청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러한 우익 청년단체들 간의 충돌은 대청 개성지부 위원장 민원식이 살해당하고 대청 웅진지부 위원장에 대한 암살 기도가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보복 공격을 유발하기도 했다. 대청은 라이벌 조직인 족청을 비난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은 우익 청년단체 통합이라는 대청의 결성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서청과 독청 등 대청에 가입했던 기존 청년단체 단원들은 이러한 충돌 과정에 회의를 느끼고 이전 조직으로 복귀하기도 했고, 대동청년단 내부에서도 전과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지부장을 몰아내는 등 내부 균열이 발생했다.

결국 애초부터 대동청년단 가입에 미온적이었거나 대동청년단에서 탈퇴한 대한독립청년단(독청), 청년조선총동맹(청총), 서북청년회(서청), 독립촉성국민회 청년대(국청) 주도로 1948년 2월 14일 구국청년총연맹이 발족하였다. 청총의 유진산, 서청의 문봉제, 독청의 서상천 등이 구국청년총연맹의 의장단에 선출되었다.¹³⁾

의장단 일원인 유진산은 “국권 회복은 우리 청년에게 있다고 자부하는 바이며 이 중책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청년 단체의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원칙한 통합은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므로 우리는 우선 이념을 통일하고 그리고 행동까지 통일하여 청년의 완전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밝힘으로써 대동청년단 중심의 무원칙한 우익청년단체 통합운동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표명했다.¹⁴⁾

이제 우익청년단체들은 1948년 12월 21일, 이승만의 청년단체 통합 지시에 따른

13) 《서울신문》 1948.2.15.

14) 《경향신문》 1948.2.15.

대한청년단 발족이 있기 전까지 이범석 주도의 조선민족청년단, 이청천 주도의 대동청년단, 대동청년단 非합류파 중심의 구국청년총연맹으로 크게 3분되어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서청, 청총 등 기존의 청년단체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간판을 내걸고 활동함으로써 우익 청년단체들의 완전한 통합은 이승만의 강제 지시에 의한 대한청년단 발족 전까지 유보되었다.

맺음말

대동청년단을 중심으로 한 우익청년단체 통합 운동은 우익청년단체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2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난항에 빠져 있던 ‘건국 운동’에 일로매진한다는 차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정치적 성향, 인맥, 출신 지역,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청년단을 하나의 단일체로 통일해 내기 위해서는 이청천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다양한 청년단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와 자금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동청년단 중심의 우익청년단체 통합운동은 좌절되고 말았다.

대동청년단 중심의 통합운동 실패에는 조선민족청년단을 이끌던 이범석과 이청천의 라이벌 관계 역시 크게 작용했다. 이청천과 이범석은 광복군 장군이라는 상징성과, 建軍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했던 인물이었다. 이들이 모두 청년운동에 투신했다는 것은 결국 建軍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범석은 미군정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기존 청년단체와는 다른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며 안정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청천의 청년단체 통합운동에 동참할 이유가 없었다. 미군정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승만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범석이 이청천에게 조직과 자금력을 모두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둘의 이러한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하여 우익청년단의 통합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우익청년단 사이의 충돌과 갈등, 분열이 심화되는 역효과만 발생했을 뿐이다. 이로써 족청, 대청, 구국청년총연맹으로 우익청년단이 3분되었고 이러한 분열 양상은 이승만에 의한 강제 명령으로 대한청년단이 발족할 때까지 지속되었다.